

WBC 한국대표팀, 네덜란드전 0-5 완패

'최악' 모면하려면 대만을 잡아라

오늘 대만전서 승리해야 패배시 A조 최하위로 밀려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이미 '안방 참사'를 겪은 한국 야구가 '최악의 참사' 모면목표를 대만전에 나선다.

김인식(70) 감독이 이끄는 한국 WBC 대표팀은 지난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WBC 1라운드 A조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1-2로 석패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한국은 다음 날인 7일에도 A조 최강 전력으로 꼽힌 네덜란드에 0-5로 완패하면서 사실상 2라운드 진출이 무산됐다.

물론 '경우의 수'가 남아있기는 하다.

8일 대만이 네덜란드를 잡고, 9일 이스라엘이 네덜란드를 꺾어야 한다. 9일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대만을 이기면 한국과 대만, 네덜란드가 나란히 1승 2패로 동률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동률팀 간 이닝당 최소실점, 최소 평균자책점, 최고 타율 순으로 순위를 정해 4위가 탈락한다. 2, 3위는 2라운드 진출권을 놓고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하지만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메이저 리그가 즐비한 네덜란드는 한국과의 첫 경기에서 A조 최강 전력을 뽐냈다. 대만은 한국을 2-1로 힘겹게 꺾은 이스라엘에 7-15로 완패했다.

한국은 1라운드 탈락이 확정된 상태로 9일 대만과의 최종전을 치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따졌을 때 꼭 승리가 필요하다.

2006년 초대 WBC에서 4강에 오른 한국은 2009년 제2회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차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7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A조 한국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5-0으로 패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관중들에 인사하고 있다.

지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겹치면서 야구 인기가 치솟았다.

야구 인기가 오르면서 KBO리그 규모가 커지고, 인프라도 점차 개선됐다. 고척스카이돔이 생기면서 WBC도 유치했다.

1라운드 유치국으로서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1승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명분보다 중요한 문제도 있다.

WBC 본선에는 16개국만 나선다. 이 중

12개 국가만 차기 대회 본선에 직행한다.

2013년부터 참가국을 28개로 늘린 WBC

는 지난 대회 상위 12개 나라에 본선 직행권을 줬다. 2013년 WBC 각 조 상위 3개

팀이 이번 대회 본선에 직행했다. 나머지

16개국은 4개 조로 나뉘어 예선을 치른 후

각 조 1위가 본선에 나섰다.

이번 대회 본선에 나선 16개국 가운데 호주와 이스라엘, 멕시코, 콜롬비아가 지난해 예선을 치른 후 본선 무대를 밟았다.

2006년 4강, 2009년 준우승의 성적을 낸

한국은 WBC 예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2013년 1라운드에서 탈락했지만 조 3

위에 올라 간신히 예선으로 밀리는 수도

를 피했다.

한국은 대만에도 패배하면 A조 4위로 밀

려 2021년 WBC 본선권 티켓을 얻지 못한

다. 1년 전인 2020년부터 대표팀을 구성해

WBC 예선을 치러야 한다.

그 해에 벌어지는 도쿄올림픽에서 야구

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터라 WBC 예선

을 치러야할 경우 KBO리그 일정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들은 정규리그 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WBC 예선, 2021년 WBC 본선까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4년 전 한국 야구는 WBC 1라운드에서 탈락하며 '타이중 참사'를 경험했다.

물론 안방에서 2패만을 떠안은 현재가 '타이중 참사'보다 더욱 뼈아프다.

하지만 역대 최악의 참사를 피하려면 A조 최하위로 밀리는 사태를 피해야 한다.

1라운드 탈락이 확정돼도 대만전을 승리로 장식해야 하는 이유다.

/김민근 기자

“패배는 내 책임 한국야구 배울 게 많아”

김인식 WBC 한국대표팀 감독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사상 최악의 성적을 거둔 한국대표팀의 분위기가 참울하다. 한국대표팀은 8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고척스카이돔에서 자체훈련을 했다.



한국은 지난 6일 예선 첫 경기인 이스라엘전에서 1-2로 석패한 후 7일 네덜란드에서 투타의 난조 속에서 0-5로 졌다. 8일 저녁 열리는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의 경기에서 네덜란드가 이기면, 한국은 9일 경기결과(대만전)에 관계 없이 예선 탈락이다.

그라운드에서 미리 나와 선수들을 맞은 김인식 감독은 “내일 대만전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선수들은 조용히 훈련에 임했다. 표정 역시 어두웠다.

“네덜란드 투수력 스피드 월등 야수들의 기본기 다지기 위해 어릴 때부터 훈련 필요”

김 감독은 “선수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신인급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이 있을 것이다. 선배들과 코칭스태프는 후배들을 위해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패배를 통감한다. 선수는 죄가 없다.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점을 갖고 앞으로 팀에 들어가 열심히 하면 한국 야구가 조금 더 발전할 것이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감독은 패배를 깨끗이 인정했다. 특히 네덜란드전을 치른 후 실력차가 존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WBC에서 좋은 성적을 낸 적은 있지만, 일본 등 강국과 기술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네덜란드의 투수력만 봐도 한국 투수들과 스피드 차이가 6~7km 정도 난다. 제구도 낮고 똑바로 들어오는 공이 없다. 젊은 선수들이 보고 배우야 한다.

야수들의 송구, 수비 능력 등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엔 리틀 야구단은 많지만 중학교 선수가 될 수 있는 클럽팀은 별로 없다. 중학교 때 야구를 좋아해도 학교에 야구가 없으면 야구를 하기가 어렵다. 야구는 매일 한다고 느는 게 아니다. 클럽팀에서 야구를 하다가 고교로 진학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패배로 인해 선수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상당하다. 김태균은 어제 경기 후 새벽에 감기 몸살도 응급실로 갔을 정도다. 내일은 총력전이다. 모든 투수들도 다 대가다. 조금 아픈 선수들도 나와야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민근 기자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1년 앞으로... 한국, '톱 10 진입' 노린다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동계패럴림픽은 오는 2018년 3월9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등에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선수·임원 1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하나된 열정(Passion.Connected)'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평창동계패럴림픽은 6개 종목, 총 80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전에 돌입한다.

한국은 6개 전 종목에 선수들을 출전시킬 예정이다. 금메달 1개 이상, 메달 4개

이상을 획득해 사상 첫 세계 톱10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동계패럴림픽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다. 지난 대회인 2014소치동계패럴림픽에서는 4개 종목에 27명이 참가했지만 메달을 하나도 수확하지 못했다.

역대 패럴림픽에서는 은메달 2개(2002 솔트레이크시티 알파인스키 은메달, 2010 밴쿠버 휠체어 컬링 은메달)가 전부다.

한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인만큼 흠이점을 안고 사상 첫 금메달 획득이라는 목표를 걸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 열리는 평창동

계패럴림픽은 기존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한다.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설상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와 정선 등 '평창 마운틴 클러스터'에서 열린다.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등 빙상 종목은 '강릉 코스타 클러스터'에서 펼쳐진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는 장애인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장애인 바이애슬론에 출전하는 신의현(36·창성건설)이다.

신의현은 오는 10일부터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펼쳐지는 2017 평창 세계장애

인노르딕스키 월드컵에 출전해 기량을 점검한다.

시각 장애인 알파인스키 양재립(28·국민체육진흥공단)도 유력한 메달 후보다.

휠체어컬링에서도 감각 메달이 기대된다.

휠체어컬링은 국내 동계스포츠 단체종목 중 유일한 메달 획득 종목이다. 2010 밴쿠버동계패럴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스하키도 메달을 바라보고 있다. 빙판위의 메스'로 불리는 정승환(31·강원도청)을 비롯해 한민수(47·강원도청), 이종경(44·강원도청) 등 결출한 선수가 포진돼 있다.

2016리우패럴림픽 사이클 종목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이도연은 동계올림픽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도연은 장애인크로스컨트리 등에 나선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